

# 집중호우 대응 주민 안전 진두지휘

### 한득수 임실군수, 기상상황 따른 호우피해 상황 수시 보고·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점검

한득수 임실군수가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안전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을 진두지휘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반복적으로 발령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누적강수량은 평균 45mm를 기록했으며 강진면이 78.5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시간당 최대강우량은 이날 오전 4시 침출면에서 43mm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주민 대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도 접수되지 않았다.

특히 앞선 8일부터 한득수 임실군수는 기상상황에 따른 호우피해 상황 및 비상대응체계 운영을 수시로 보고 받고, 영상회의 및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등 재난상황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수시로 행하고 있다.

한 군수는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석보천 현장 먼저 찾아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은 석보천의 저지대 제방 일부가 범람해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을



한득수 임실군수가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안전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을 진두지휘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읍 현곡리 1096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석보천 재해복구사업은 총사업비 6억 2천만 원(도비 3.1억, 군비 3.1억)을 투입해 0.193km 구간의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경지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해 경작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이미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변

산책로 2개소와 세월교 7개소를 사전에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한 군수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인 예방과 현장대응"이라며 "앞으로도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기상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장류축제' 글로벌 축제 도약 만전

### 순창군, 준비상황 보고회 가져

순창군은 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실과장, 읍·면장,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년 예비 글로벌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관·학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자리로, 글로벌 축제 대응 최우선보고와 축제 준비상황 보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협조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글로벌 축제 대응 분야에서는 순창장류축제가 장(醬)문화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글로벌 홍보를 확대하고 수용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류를 활용한 미식·체험 콘텐츠 확대, 해외 홍보마케팅, 다



국어 안내서비스 구축,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제시됐다.

이어 문화관광과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의 주요 프로그램과 행사장 운영 계획, 교통·주차 대책, 안전관리, 홍보, 외국인 관광객 수용대책 등 분야별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소상공인연합회-7733부대,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는 지난 7일, 7733부대와 지역사회상생 및 군 정병·군인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군 정병과 그 가족이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군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연합회는 소속 가맹점에서 군 정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가맹점 입구에 '군 정병(군인가족) 우대업소' 안내판(또는 스티커)을 부착해 이용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7733부대는 부대 내 공지사항과 자체 통신망 등을 활용해 정병과 군인가족에게 참여 가맹점 정보를 홍보하고, 외출·외박·휴가 시 지역 상권 이용을 장려하는 등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대표사회연대경제기업 우뚝

### 웅치마을영농회, 고용노동부 심사 결과 '사회적기업 인증'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심사 결과, (유)웅치마을영농회(이하 영농회)가 사회적기업(지역사회공헌형)으로 인증되었다고 밝혔다.

남원시 주천면의 영농회(대표 최미아)는 2020년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출발 후, 지역 사회와의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명실상부한 남원시 대표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영농회는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옥수수, 들깨 등을 매입해 쌀감정, 조청, 무가당 식혜 등 건강하고 안전한 전통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공정 소규모 HACCP 인증을 기반으로 철저한 위생 관리를 거쳐 고품질의 전통 식품을 현대적으로 상품화해 왔다.

또한 단순히 제품 생산에 그치지 않고 전통 식품 체험장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 참여형 생산 구조와 농촌 체험관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융복합 산업(6차 산업) 우수 모델을 다져가고 있으며, 경쟁력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한국벤처산업협회의 K-벤처 인증기업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사회적기업 인증은 영농회가 추구해 온 든든한 '소셜미션'과 '지역상생 모델'이 빛을 발한 결과물로 웅치마을영농회는 고품질과 결핵이주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남원시는 7월 8일, 남원시청에서 이번 인증을 축하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상생형 일자리를 넓히는 여정에 함께 노력하자며 뜻을 모았다.

영농회 최미아 대표는 "마을기업에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연이어 획득하게 되어 마을 주민들과 근로자 모두가 큰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전통 식품 및 음료 생산 주민 참여형 생산 구조와 농촌 체험관을 적극적으로 넓혀 남원의 전통 먹거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모바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노동자 전입정착금' 지급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관내 제조기업 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노동자 전입정착금'을 7월부터 모바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원시가 전입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지역어 머무는 소비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노동자 전입정착금 지원사업 예산은 총 6천만원으로, 상반기까지 30개 제조기업, 106명의 노동자에게 총 3천만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부터는 나머지 3천만원을 모바일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16년 12월 9일 이후 남원시로 전입한 내국인 노동자 △신입 기준 남원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관내 제조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은 1인 전입 시 월 5만원, 2인 이상 전입 시 월 10만원 예산을 최대 2년간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제조기업, 106명의 노동자에게 총 3천만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부터는 나머지 3천만원을 모바일 남원사랑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위한 실무분과 회의 열려

임실군은 지난 7일 임실군청 농민교 육장에서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2026년 제2차 임실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무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임실군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사회보장 분야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는 계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 수행기관

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초점집단면접(FGI) 방식의 분임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수립 과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 실무분과는 복지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 기구다.

각 분과 위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주민들의 생생한 복지 수요와 임실군만의 인구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사랑상품권 개인 월 구매해도 조정

순창군은 순창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다 많은 주민에게 상품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15일부터 개인 월 구매한도를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치가 한정된 상품권 발행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품권 구매가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추후 예산 상황을 예의주시 후 개인 월 구매해도 및 상품권 월 발행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월 구매해도 100만원은 전북도 지자체 중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과 함께 가장 높은 한도액이며,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2%를 유지한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순창사랑상품권 정책이 상호 연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순창사랑상품권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 혜택을 위한 취지임을 밝히면서, 순창사랑상품권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연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 공모

남원소방서는 소방청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오는 7월 31일까지 사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어 성과 우수사례는 법적 규제 수준을 강화하거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도입한 사례, 실제 극복사례는 적극적인 안전관리 업무 추진을 통해 종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한 사례로, 대회는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